

폴란드 사무소/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센터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 (7월 2주~7월 3주)

□ 정책 및 시장 동향

① 폴란드 경제 동향

- 폴란드 6월 실업률, 5.1%로 소폭 상승(7.4)
 - 6월 실업률은 5.1%로 집계, 5월 대비 0.1%포인트 상승함(GUS)
 - 실업자 수는 전월보다 14,200명 증가했으며, 6월 말 기준 전국 실업자 수는 약 79만 7천 명으로 집계됨
 - * 이전 폴란드 통계청(GUS)은 5월 실업률이 4월 5.2% → 5.0%로 하락했다고 발표
 - EU 통계청(Eurostat)은 폴란드의 5월 실업률을 3.3%로 발표했으며, 이는 EU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낮은 수준(GUS와 산정기준이 다름)
- 폴란드 주택 준공 실적, 2025년 1~5월 전년 동기 대비 3.2% 감소(6.30)
 - 통계청(GUS) 발표에 따르면 2025년 1~5월 주택 준공 실적은 약 7만 6,700호로 전년 동기 대비 3.2% 감소
 - 같은 기간 주택 착공 건수는 총 9만 4,900호로 6.2% 축소되어 건설 착공 활동이 둔화된 점을 시사
 - 5월 건설·조립 부문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2.9% 감소했으나 전월 대비 8.5% 상승하며 변동성 존재
 - 2024년 주택 준공 총량은 약 20만 4,000호로 2023년 대비 9.4% 하락한 것으로 추정, 건설 경기 위축이 지속
- 폴란드 중앙은행, 기준금리 0.25%p 인하 단행(7.2)
 - 폴란드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는 7월 2일 기준금리를 0.25% 인하 조정한다고 발표(5.25%→5.00%)
 - 지난 5월에도 0.5%p 인하 조치를 시행한 바 있으며, 당시 중앙은행 총재는 임금 상승 압력 완화 및 경기 둔화를 배경으로 언급
 -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4.1%로, 물가 상승 둔화 추세에서 추가적인 완화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

- 2023년에는 총 1.0%p 기준금리를 인하했으며, 이번 인하 조치는 2021~22년 긴축 사이클 이후 나타나는 완화 기조의 연장선으로 해석됨

○ 폴, 기업 해외 직접투자 증가, 2019~23년 간 97억 유로 집행(7.3)

- 폴란드 일간지 Puls Biznesu에 따르면, 폴란드 기업들은 인수·공장 신설·현지 파트너십 등으로 해외 투자를 공격적으로 확대
- 2014~18년 70백만 유로에 불과하던 해외 직접투자가 2019~23년 97억 유로로 급증
- 체코(111.8%), 불가리아(173.4%), 슬로바키아(155.6%), 루마니아(346.6%) 등 중부·동부 유럽 국가에서 투자 증가율이 특히 두드러짐
- 반면 헝가리에서는 폴란드 기업들이 자본을 회수하며 투자 규모 감소
- 헝가리 투자 축소는 높은 인플레이션, 재정 적자, 헝가리 정부와 EU 간 정치적 긴장 등이 원인으로 분석됨

○ 폴란드 5월 소매판매, 전년 동월 대비 4.4% 증가(GUS, 6.25)

- 통계청(GUS)은 2025년 5월 소매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실질 기준 4.4% 증가했다고 발표
- 품목 별로는 가구·가전·전자제품 18.9%↑, 자동차 15.7%↑, 의약품·화장품 6.0%↑, 의류·신발 4.7%↑
- 명목 기준으로는 전년 동월 대비 4.3% 증가했으며, 전월(4월) 대비 소매판매는 3.2% 감소
- 안제이 도만스키 재무장관은 소비자 신뢰 회복이 내수 판매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언급

② 우크라이나 경제 동향

○ 우, 인플레이션 둔화세 시작, 임금 상승분의 절반 이상 잠식(7.8)

- 우크라이나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5.9%로 정점이었으나, 6월 공공요금 안정으로 15% 미만으로 하락
- 에너지 공급 안정 및 식품시장 충격 부재 시 하반기 인플레이션

완화 지속 전망

- 기업·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다소 악화됐으나, 실제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수준 유지
- 노동력 부족 영향으로 명목임금 20% 이상 상승하였으나, 인플레이션 반영 시 1분기 실질임금 상승률은 9.2%로 둔화
- 임금 상승분의 절반 이상이 물가 상승에 상쇄, 실질 구매력 개선 효과는 제한적임

○ 우, 부동산 시장, 안전자산 목적의 비거주형 투자 증가(6.24)

- 전쟁 장기화 속에서 동부 지역 거주자들이 서부 지역 주택을 구입하되 비워둔 채로 보유, 위기 시 가족 대피처로 활용하려는 수요 증가
- 실거주나 임대 수익 목적이 아닌 ‘위험 회피용 대체 주거처’로 인식되며, 실수요와 무관한 신규 수요 형성
- 6월 23일 기준, 우크라이나 주택 평균 평방미터당 가격은 신규 분양 890달러, 기존 주택 1,025달러
- 신규 분양가 최고가는 리비우(1,380달러), 기존 주택가는 키이우(1,550달러)
- 기존 주택 가격 상승률은 우즈호로드(+16%)·하르키우(+11%)가 높았으며, 신규 분양 시장에서는 오데사(+15%)·리비우(+5%)순으로 상승률이 가장 높음

○ 우크라이나 상업용 부동산, 전쟁 리스크 속 부문별 상이한 흐름(6.26)

- 소매 부문은 소비자 활동 및 쇼핑몰 방문 증가로 임대수익 및 고정 임대료 상승, 거래량도 확대
- 다만, 키이우 일부 쇼핑센터는 사업 모델 문제로 공실률이 높고, 신규 쇼핑몰 개발·오픈 계획은 거의 부재
- 오피스 시장은 여전히 공실률이 높으나, 고급 오피스를 중심으로 소폭 감소중이며, 낮은 임대료의 영향으로 세입자들이 리모델링이 완료된 상위 등급 오피스로 이전하는 추세
- 물류창고 부문은 수요 및 건설 계획 면에서 가장 활발한 상황이며, 물류 인프라 임대 수요 급증으로 공실률이 낮고 임대료는 안정세임

- 네슬레, 볼린 州에 5,000만 달러 투자한 국수 생산 공장 가동(7.8)
 - 식품기업 네슬레가 우크라이나 볼린주 스몰리히브에 5,000만 달러를 투자해 국수 생산 공장을 설립, 2년간의 준비 끝에 첫 생산 라인 가동
 - 연간 생산능력 5,000톤 규모로 2025년 말까지 도달 예정, 향후 2년 내 추가 라인 도입 계획
 - 우크라이나 내 네 번째 공장이자 볼린주에서는 두 번째 공장으로, 인근 토르친 공장과 인접
 - 생산량의 75%는 EU 수출용, 주요 원재료인 밀과 해바라기유는 현지 조달
 - 현재 300여명 고용 중이며, 추가 라인 가동 시 최대 1,500명 고용 확대 전망, 지역 세수 증대 효과 기대
 - 전쟁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식품 산업 내 최대 규모 투자 중 하나로 평가됨
- DTEK, 영국 옥토퍼스 에너지 그룹과 태양광 설치 프로그램 출범(6.24)
 - 우크라이나 최대 민간에너지 기업 DTEK은 영국 Octopus Energy Group*과 협력해 기업 및 공공기관 대상 태양광 패널과 에너지 저장 시스템 설치 지원
 - * 영국 기반 글로벌 청정에너지 기술 기업으로, 독일, 일본, 미국 등 18개국에 진출. 유럽 최대 규모 재생가능에너지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, 주요 사업 분야는 에너지 공급, 재생가능에너지 발전, 스마트 에너지 관리 시스템 도입
 - 향후 3년간 1억 유로 투자해 총 100개 지역 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예정
 - 프로그램 목표는 전력망 안정화 및 정전과 전기요금 상승 위험 완화
 - DTEK의 에너지 효율화 경험과 Octopus의 AI 기반 운영 시스템 ‘크라켄(Kraken)’을 결합해 에너지 사용 최적화
 - 시스템은 설치 현장에서 실시간 전력 관리와 잉여 전력 판매 기능 제공
- 우크라이나 대기업, 에너지 저장시설(ESF) 투자 확대(6.27)
 - 우크라이나 은행권의 대기업 대상 프로젝트 파이낸싱 중 약 75%가 에너지 저장시설(Energy Storage Facilities, ESF) 관련 사업에 집중, 고성장 분야로서 투자자 수요가 확대됨을 시사

- 풍력 및 태양광 발전소는 전체 대출의 20%, 가스 피스톤 발전소는 10%를 각각 차지
- 전년 동기 기준 대기업 대출의 70%가 가스 기반 발전 프로젝트에 집중되었던 반면, 올해는 재생에너지 및 저장 기술 중심의 투자 방향 전환
- 은행권의 금융 구조화 역량과 리스크 수용 태도가 ESF 투자 확대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며, 컨소시엄 파이낸싱 등 복합적 자금 조달 구조가 적극 활용 중
- 2025년 기준 기업 대상 에너지 프로젝트 대출 규모는 약 93백만 유로로, ESF 단일 프로젝트가 45%, 풍력발전 43%, ESF-풍력 혼합 프로젝트가 12% 비중을 각각 차지

○ 풍력·태양광 발전 업계, 세제 및 가격제한을 성장 제약 요인으로 지적(6.24)

- 라쭌코프 센터* 오멜첸코 국장은 풍력발전 장비에 대한 부가세 및 수입세를 산업 성장의 주요 장애물로 언급하며 면세 필요성을 제기
 - * 라쭌코프 센터(Центр Разумкова, Razumkov Center) : 우크라이나의 신뢰받는 싱크탱크로, 정치, 경제, 에너지, 안보, 국방, 사회 문제 등 다양한 공공정책 연구를 수행
- ‘22년 2월 러시아 침공 이후 풍력 발전 용량의 80% 이상이 손실되었으나, 전쟁 전까지는 남부·동부 지역 중심으로 급속히 성장
- 전쟁 상황에도 투자가 지속되며, 2023년 미콜라이우 지역 킬리홀 풍력단지 1단계(114MW)가 가동, 현재 7개 대형 프로젝트가 추진 중
- 우크라이나 태양광에너지협회 소콜로브스키 회장은 전력시장 가격 상한제가 산업용 태양광 발전소 개발을 사실상 중단시켰다고 지적
- 초기 투자가 큰 프로젝트 특성상 시장 가격 제한은 신규 투자자 유입을 막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언급함

○ 우크라이나, EU 전력 수출 최대 40% 확대 전망(7.4)

- 유럽 송전망 운영자 협의체(ENTSO-E)*는 우크라이나·몰도바의 EU 전력 수출 한도를 250MW 상향 조정, 총 900MW로 확대

* ENTSO-E(European Network of Transmission System Operators for Electricity) : 2009년 설립된 유럽 송전망 운영자 협의체로, 현재 39개국 40개 송전망 운영기관(TSO)이 참여, 유럽 전력망의 동기화 운영, 계통 안정성 유지, 국경 간 전력 수출입 용량 설정, 송전망 운영 규칙(계통 코드)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

- 증설된 수출 용량은 우크라이나 전력 공급망 안정화 및 발전소의 여유 전력 판매 수익 증대에 기여
- 여름철 태양광 발전 증가에 맞춰 수출 제한 없이 전력 수출 가능할 예정이며, 한도는 8월 1일까지 적용 후 매월 재검토 예정
- 2025년 6월 전력 수출량이 전월 대비 150% 증가한 약 24만 MWh 돌파, 전년 동월에는 수출 전무
- 2023년 10월 이후 처음 순전력 수출국으로 복귀했으며,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 공격 이전인 2022년 가을 수준의 수출량을 회복함

○ 우크라이나 최대 제철소, 전기요금 급등으로 가동 중단 위기(7.3)

- 우크라이나 최대 제철소(ArcelorMittal Kryvyi Rih) 재무이사 자도로즈니는 전기요금 급등으로 인해 공장이 폐쇄 위기에 직면했다고 언급함
- 해당 제철소는 지난 4년간 지속된 적자로 인해 모기업의 재정 지원에도 한계가 있으며, 장기적 생존 가능성에 위협이 되고 있음
- 2025년 5월 우크라이나의 전기 단가는 MWh당 약 94유로로 유럽 내 가장 높은 수준, 비교 대상인 프랑스는 약 20유로 수준에 불과
- 에네르고아톰(Energoatom)*의 전력 독점과 우크레네르고(Ukrenergo)**의 저가 전기 수입 제한 정책으로 인한 에너지 시장 내 경쟁구조 부재가 높은 전기요금의 원인으로 주목됨

* 1996년 설립된 우크라이나 국영 원자력 발전 기업으로, 국가 내 4개 원자력발전소에서 15기의 원자로를 운영, 국내 전체 전력 생산의 약 50% 이상을 담당하며, 원전 운영, 폐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함

** 우크라이나 국영 송전망 운영사로, 고압 송전망의 관리 및 전력계통 운영을 담당, 약 22,000km의 송전선을 보유하고 있으며, 2022년 유럽 송전망 운영자 협의체(ENTSO-E)와 동기화를 완료

- 자도로즈니 이사는 “시장 상황상 추가 비용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 없어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기업 생존이 불가능하다” 고 경고
- 제철소 폐쇄 시 18,000여 개의 일자리 상실과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외환 수입 감소라는 중대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됨

○ 우크라이나 노동가능 인구 감소 및 인력난 심화(7.3)

- 전쟁으로 노동가능 인구의 약 40% 상실, 약 170만 명이 해외 체류 중
-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991년 12%에서 2024년 22%로 급증하며 심각한 인구 고령화 진행 중
- 2051년까지 28.9백만 명, 최악의 경우 25.2백만 명으로 인구 감소 예상
- 74%의 기업이 인력 부족 겪고 있으며 평균 인력 공백률은 약 15% 수준
- 숙련 기술 인력(용접공, 전기기사 등) 부족이 특히 심각하며, 젊은 층의 관심 저조로 신규 인력 확보 어려움
- 기업 및 정부는 임금 인상, 지원 자격 완화, 45세 이상 및 퇴직자 여성 채용 확대 등으로 인력 확보 경쟁 중

○ WIIW, 우크라이나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및 대외지원의존 경고(7.3)

- 빈 국제경제연구소(Wiener Institut für Internationale Wirtschaftsvergleiche, WIIW)는 2025년 우크라이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.0%에서 2.5%로 하향 조정, 1분기 성장률은 1%로 둔화(2024년 2.9%)
- 민간 소비와 방위 산업 중심의 생산은 견조하나, 전쟁 장기화로 인한 피해를 상쇄하기에는 부족
- 최근 발생한 가뭄에 따른 흉작 가능성과 EU의 우크라이나 농산물 무관세 조치 일시 중단도 추가 악재로 작용
- 빈 국제경제연구소는 우크라이나 경제가 서방의 재정·군사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, 미국이 지원을 중단하고 유럽이 이를 대체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

③ 폴란드 인프라 및 외교 동향

○ 폴 대통령, 우크라이나 지원은 자국 안보에 필수라 재확인(6.30)

- 두다 대통령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진행한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,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가 폴란드 안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함
- 양국은 EU·NATO 협력, 국방 분야 공동 대응, 드론 개발 등 전략적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함

- 두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헌법기념일 행사에 참석하고,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외국인 최고 훈장인 ‘자유 훈장’을 수훈함
- 젤렌스키 대통령은 폴란드의 일관된 지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, 두다 대통령의 역할을 높이 평가함
- 두 정상은 역사 화해를 위한 푸즈니키 지역 유해 발굴 허가를 언급하며 양국 간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을 뜻을 밝힘
- 두다 대통령은 폴란드 기업 2,000여 곳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준비 중임을 강조하고, 경제 협력 확대를 제안함

○ 폴란드-네덜란드 총리 회담, 국방 협력 강화 MOU 체결 예정(7.7)

-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바르샤바에서 스호프 네덜란드 총리와 회담을 갖고, 양국 국방장관은 군사 협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(MOU)에 서명할 예정임
- 양국은 1990년대 체결된 기존 협정을 현 안보 환경에 맞춰 개정하고, NATO 협력 강화 및 유럽 안보 대응을 중점적으로 논의함
- 개정 MOU는 NATO의 중심적 역할을 재확인하고, 장관급 및 작전 수준에서의 정치·군사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함
- 회담 후 양국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협의 내용을 발표할 예정임
- 폴란드 총리실은 이번 회담이 양자 관계, 유럽 안보, EU 주요 현안을 포괄하는 논의의 일환이라고 설명함

○ 폴 외무장관, 공관장 회의에서 NATO 협력 및 비자 개혁 강조(7.7)

- 시코르스키 외무장관은 바르샤바에서 열린 공관장 회의에서 강화된 NATO 및 대서양 동맹이 폴란드 안보·번영의 핵심이라 강조
- “희망은 전략이 아니다”며 외교적 불확실성 대비와 군사·경제 협력 병행 필요성 강조
- 6월 1일 발효된 개정 비자법은 회계감사원·이민 TF·의회 조사위가 지적한 비자 발급 비정상 사례의 개선 목적이라고 언급
- 이외에도 주요 해외 공관(파리, 뉴욕 등) 대상 현대화·임대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으며, 외교업무 기반 기술로서 AI의 필요성을 제기
- 이번 회의에는 전 세계 160여 외교·문화 기관 대표가 참석하였으며,

몰도바 대통령 마야 산두가 특별 연사로 참여함

○ 폴란드, 방산 수입 증가로 對한국 수입 30.1% 급증(6.27)

- 폴란드개발기금(Polski Fundusz Rozwoju, PFR)* 보고서에 따르면, 2025년 1~4월 폴란드의 對한국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0.1% 증가한 35억 유로를 기록
- 이는 동 기간 폴란드의 10대 교역국 중 가장 높은 수입 증가율이며, 국방 수요 확대가 對한국 수입 증가에 결정적 역할
- 전차 및 장갑 전투 차량 수입은 444백만 유로로 73.2% 증가, 무기류 수입은 약 264백만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만% 급증
- 폴란드는 같은 기간 약 28억 유로 규모의 무역수지 적자 기록, 주요 수입국은 독일, 중국, 미국 순

○ 폴란드 해외 진출 통합지원 플랫폼 ‘Team Poland’ 출범(7.7)

- 폴란드 정부,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진출 통합지원 플랫폼 ‘Team Poland’ 이니셔티브 출범
- 참여기관은 정부 산하 6개 경제기관으로, 폴란드개발기금(PFR), 산업개발청(ARP), 국책은행(BGK), 투자무역청(PAIIH), 수출보험공사(KUKE), 중소기업청(PARP)
- 첫 프로젝트로 ‘Team Poland for Ukraine’ 발표,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
-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(대출·보증·보험), 시장 정보, 자문, 비즈니스 매칭 등 통합 지원 제공
- Team Poland 이니셔티브는 7월 로마에서 개최되는 ‘우크라이나 재건 회의(Ukraine Recovery Conference, URC)’를 통해 국제 무대에 공식 소개 예정

○ 폴란드, EU 내 태양광 에너지 신규 설치 규모 5위, 시장 규모 확대(7.7)

- 폴란드 재생에너지연구소(Institute of Renewable Energy)에 따르면, 폴란드는 2024년 EU 내 태양광 신규 설치 용량 5위, 누적 설치 용량 6위를 기록

- 2024년 말 기준 폴란드 내 태양광 설치 용량은 21.2GW, 2025년 1분기에는 22GW로 증가
- 소규모 설치(50kW 미만) 비중은 60%로 감소, 대규모 설치(1MW 이상)는 11%에서 20%로 확대되며 시장 구조 변화
- 태양광은 폴란드 내 재생에너지 전력의 38.5%, 국가 전력 소비의 10.6%를 차지하며, 이는 전체 에너지 소비의 2.2% 차지
- 2025년 6월부터는 전력망 과부하에 따른 출력 제한으로 약 600GWh의 태양광 발전량이 차단됨
-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 제약 및 전력 가격 하락으로 인한 투자 위축 우려 초래
- 연구소는 태양광과 난방 부문의 통합, 동적 전기요금제 도입, 배전 요금 체계 개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

4 우크라이나 정부외교 및 정책

- 주요국 정부, 우크라이나 재건 투자기업 지원 프로그램 추진(6.24)
 -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 참여 기업에 약 67백만 달러 규모의 우대 대출을 제공하며, 우선지원대상은 물류, 건설, 재화 및 서비스 공급 분야 기업
 - 프랑스는 공공투자은행인 Bpifrance의 수출보험을 통해 전쟁 종식 전 정치·상업 리스크를 최대 95% 보장하며, 인프라, 의료, 상하수도, 에너지 분야 중심의 수백만 유로 투자펀드 조성
 - 독일은 국책개발은행 KfW과 독일 최대 신용보험사 Euler Hermes를 통해 대출 보증 및 투자 보험 프로그램 준비 중
 - 이탈리아는 수출신용기관 SACE를 통한 약 15억 유로 규모의 금융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자국 기업의 재건 프로젝트 참여 지원
 - 일본은 JBIC(일본수출입은행)을 통해 민간과 협력하여 최대 1억 달러 규모의 재건 지원 계획 발표

- 젤렌스키-트럼프, NATO 회담서 우크라이나 전황 및 방위협력 논의(6.25)
 -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6월 25일 헤이그 NATO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, “길고 실질적인 대화” 였다고 평가
 - 양측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가능성과 평화 달성 방안, 민간 보호 및 안보 협력에 대해 논의
 - 젤렌스키는 미국산 방공 시스템 구매 의향을 밝히고, 유럽의 재정 지원을 통한 공동 무기 조달 및 미국 방산업체와의 협력을 언급
 - 드론 공동 생산 가능성 및 전황 관련 평가도 논의, 젤렌스키는 현지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미국 측에 협조를 요청
 - 트럼프는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전쟁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 푸틴 대통령과 조만간 대화할 계획이라고 발표
 - 또한 러시아가 전쟁에서 철수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도, 푸틴의 영토적 야망이 우크라이나를 넘어설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
- 덴마크, 우크라이나와 자국 내 무기 공동 생산 착수(6.26)
 - 우크라이나-덴마크 국방장관은 덴마크 내 우크라이나 무기 공동 생산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함
 - 이는 ‘Build with Ukraine’ *구상의 첫 실행 단계로, 양국 간 기술 교류 및 방산 통합의 기반이 됨
 - * Build with Ukraine: 우크라이나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국제 협력 재건 이니셔티브로,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의 재건, 산업 회복, 방위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외국 정부, 기업, 투자자들과 협력하는 공식 플랫폼
 - 덴마크 정부는 우크라이나 무기 생산 가속화를 위해 약 66백만 유로 (약 107억원) 지원 예정
 - 이번 협력으로 설립되는 생산 시설은 우크라이나 국방력 강화를 위한 용도로 한정 사용 예정
 - 젤렌스키 대통령은 “덴마크는 우크라이나와 공동 무기 생산을 시작하는 첫 국가가 될 것” 이라고 평가함
 - 덴마크는 올해 우크라이나 장거리 드론 생산 지원을 위해 총 12.6억유로 (약 2조 3억원) 추가 지원 예정

○ EBRD · EIB · Dragon Capital, 우크라이나 인프라 펀드 조성 추진(6.30)

- EBRD(유럽부흥개발은행), EIB(유럽투자은행), Dragon Capital*이 우크라이나 인프라 개발을 위해 350백만 유로 규모 펀드(Amber Dragon Ukraine Infrastructure Fund I) 조성 추진 중
- *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본사를 둔 주요 투자 및 금융 서비스 그룹으로 2000년 설립되었으며, 기관 투자자, 기업 및 개인 고객 대상 주식 및 채권 판매부터, 거래 및 연구, 투자 은행 업무, 사모펀드, 자산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
- EBRD가 6천만 유로, EIB 4천만 유로 출자예정이며, EBRD는 앵커 투자자로 참여하여 민간 및 기관투자자 유치를 통한 자금 조달 확대가 기대됨
- 펀드는 재생에너지, 친환경 교통, 디지털 인프라 등 분야 중심으로 투자 예정
- 영국계 Amber Fund Management Ltd가 주도하고, 우크라이나 투자사 Dragon Capital이 현지 전문성과 제도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
- EBRD 투자안은 9월 24일 이사회 심의 예정, EIB는 현재 타당성 검토 단계

○ 미국,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축소에 외교적 긴장 고조(7.2)

- 7월 2일, 미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사일 및 탄약 공급 축소 방침을 밝혔으며,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미 대사관 부대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
- 미국의 지원 지연이 러시아의 공격 확대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
- NATO 정상회의 계기 트럼프와 젤렌스키 간 회담이 이루어졌으나, 군사지원 관련 구체적 합의나 진전은 확인되지 않음
- 회담 전,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기자의 질문에 개인적 공감을 표하며 무기 지원 관련 검토의사를 밝혔으나, 결과적으로 공급 축소로 이어짐
- 우크라이나는 기존 미국 정부조달 계약 만료를 앞두고, 무기 조달을 위한 상업적 계약 확대에 나서고 있음
- NATO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공동선언문 명시, 군사지원 약속 및 방위비 인정 등 성과가 있었으나, 회원국 가입 관련 진전은 없었음

- 미국은 대러 협상카드 및 러시아 반발 우려로 소극적인 입장, 독일·헝가리 등도 안보 리스크 이유로 우크라이나의 가입에 우려 표명함
- 우크라이나는 NATO 미가입 상태가 러시아에 침공 명분이 된다면, 전후 조속한 가입이 실질적 억제책이라고 언급

○ 세계은행, 우크라이나 철도 컨테이너 운송 역량 강화 권고(7.3)

- 세계은행은 우크라이나 철도공사(UZ, Ukrzaliznytsia)가 경제 구조 변화 및 철도 화물 시장 개방에 대응해 운영 혁신과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
- 중기적으로 전통적 철도 화물인 원자재 수요는 감소할 전망이나, 고부가가치 화물 운송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
- 잠재적 수익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UZ는 컨테이너 물류 고도화, 인터모달 터미널 개발, 운영 효율성 증대에 집중할 것을 권고
- 예정된 철도 운송 관련 신법은 시장 자유화 및 운송과 인프라 관리 분리를 목표로 하며, UZ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
- UZ는 26톤 초과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운임 인상을 제안, 시장은 우려 제기

○ 우크라이나, 지방자치단체 임대주택 기금 설립 및 시범사업 개시(7.3)

- 참전용사, 전사자 가족, 군인, 역내 실향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우선 배정
- 표준 임대주택은 2인 가족 기준 40㎡, 가구 및 가전 포함, 월 임대료 ₺6,000(약 145달러) 수준으로 시장가 대비 낮게 책정
- 주요 건설 발주처는 각 지방자치단체이며, 기존 설계를 활용해 개발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 추진 예정
- 재원은 지방정부 예산, 금융기관 차입 및 국제 협력기관 보조금 등으로 조달 예정
- 사업 목적은 국내 실향민 정착 지원 및 국민 귀향 촉진
- 2025년 5월 기준 원룸 평균 임대료는 ₺7,504(약 180달러)로 연초 대비 3.9% 상승

○ 우크라이나, EU와 4억 달러 규모 공공임대주택 사업 추진(7.7)

- 우크라이나 지역개발부 쿨레바 장관은 EU 집행위 및 유럽투자은행(EIB)과 10개 시범 지역 대상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4억 달러 규모 투자 협의를 진행한다고 발표
 - 사업 지역 선정과 관련해, 점령지 인접·전투 지역을 우선 주장하는 우크라이나와 EU 인접 지역 선호하는 유럽 측 입장이 대립
 - 해당 사업은 전쟁 피해와 실향민 증가로 인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고, 지역사회의 재건을 목표로 추진
 - 이와 별도로, 마리우폴 출신 실향민을 위한 주거 프로젝트도 병행되며, 키이우주 빌라체르크바에 3개 주거단지를 건설할 계획
 -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저리 주택대출 제도를 결합한 이중 지원 모델로, 향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 추진 예정
- **우크라, URC 2025서 첫 국방 프로젝트 공개 및 투자 유치 계획 발표(7.8)**
- 우크라이나 정부는 URC 2025에서 국방 분야 프로젝트를 처음으로 공개하고, 국내외 파트너들과 기술·생산·혁신 협약 체결을 추진
 - 우크라이나 투자 프레임워크(UIF)를 통해 총 18개 투자 프로그램 발표 예정, 국가·지방·민간 기업의 신규 투자 유치 기반 마련
 - 독일 국영개발은행 KfW와 전쟁 피해 및 수복 점령지 기반의 취약 기업 지원을 위한 40백만 유로 규모 보조금 협약 체결 예정
 - 우크라이나 농업정책부는 EBRD와 오데사 관개시설 현대화 협약, 이탈리아와 농촌 개발, 일본 Fujita社와 채소 저장시설 네트워크 구축 관련 협약 체결 예정
 -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주 내에 방위 및 재건 분야에서 주요 파트너들과의 신규 협정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

□ 주요 프로젝트 동향

① 종합계획수립(마스터플랜,MP) 사업

① M10 산업단지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

< 사업 개요 >

- (발주처) 해외건설협회, KIND, 태웅로직스
- (용역사) 삼일회계법인, 법무법인지평
- (용역비) 730백만원
- (용역기간) 2025.2.~2025.9(210일)
- (추진현황) '25. 2월 용역 계약 및 국내 착수보고
'25. 3월 현지 착수보고
'25. 6월 중간보고회 개최
'25. 9월 최종보고회 개최 예정

○ (주요동향) 타당성 조사 용역 연장(5개월 → 7개월) 완료

② 6대 선도 프로젝트(참고)

② 폴란드 투자개발형 및 타당성 조사사업

① 석화(PDH/PP) 플랜트 건설 운영사업

< 사업 개요 >

- (사 업 주) Grupa Azoty, Orlen, 현대엔지니어링, KIND
- (사 업 비) 1,840백만불
- (사업내용) 폴리프로필렌 연간 43만톤 생산
- (추진현황) '19. 4월 KIND 참여의향서 제출
'20. 10월 금융종결
'25. 11월 최종 PAC(Provisional Acceptance Certificate) 발급

○ (주요동향) 발주처 준공검사 완료, Conditional PAC 발급 협의 중

② 폴란드 우치 WTE 건설 운영 사업

< 사업 개요 >

- (사 업 주) 베올리아, KIND, 남부발전
- (사 업 비) USD 480백만
- (사업내용) 폐기물 연20만톤 처리, 전기 18.6MWe 및 열 57 MWt생산
- (추진현황) '25. 3월 베올리아측 한국사업주에 사업참여 제안
'25. 4월 사업참여를 위한 사업선정위원회 승인 및 MOU체결
'25. 5월 Non-binding Offer 제출 완료(남부발전)
'25. 7월 사업참여 외부 자문용역 실사 완료 및 주요 투자조건 협상
'25. 3분기 KIND 내부 투자심의위원회 예정

○ (주요동향) 사업참여를 위한 상세 사항 외부 자문용역 중

참고	6대 선도 프로젝트 진행현황		
프로젝트명	주요내용	담당기관	추진현황 및 계획
키 이 우 교 통 마스터플랜	• (1단계) 키이우 지역 공간개발 및 재건 계획 수립, 우선사업 선정 및 pre-FS 등 * '23.12~'24.11 (수행 : 유신 컨소시엄) • (2단계) 교통모델 개발 및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 기반 교통계획 수립 등 * '24.5~'24.11 (수행 : 한국교통연구원 컨소시엄)	KIND LH	• 현지 최종보고회 개최 (키이우, '25.4월) • 후속사업(디지털교통플랫폼) 2027 국토교통 ODA 추진
우만 스마트 시 티 마스터플랜	• 우크라 중부도시 우만市에 대해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한 도시개발전략 수립(스마트도시 기반시설 및 솔루션 등) * '23.9~'24.4(수행 : 제일Eng, 수자원공사 등)	KIND	• 현지 최종보고회 개최 (키이우, 4월4주) • 국내기업 등 후속사업 추진 협의중
보 리 스 공 현 대 화 재 필 향 등 건	• 스마트공항시스템 및 항행안전 시스템 제공 등 현대화사업, 공항 확장·개발 (활주로 등) 사업 및 마스터플랜 수립 등	한국 공항공사	• 현대화(공항시스템 개선) : '24년 외교부 ODA 선정, PMC 선정 ('24.10월) • 공항MP : 2026 국토교통 ODA 추진중 • 확장FS : 국토부 지원 사업 용역사 선정 및 과업착수('24.12월)
부 차 시 하 수 처 리 시 설 재 건	• 키이우지역 부차市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계획 수립	환경산업 기술원	•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 예정('25년 上) * 환경부 F/S 지원사업
댐 재건 및 현 대 화 등	• 카호우카 댐, 이르핀강 댐 등 재건 기술지원 및 부대시설 설계 등 • 그 외 노후수력 댐 진단 및 현대화 사업 추진	수자원 공사	• '24년 기재부 KSP사업 선정(수자원시설 정책·기술자문), 용역 발주 예정('25.10월)
철 도 노 선 고 속 화 등	• 우 키이우~폴 바르샤바 구간(919km) 중 우크라 구간(580km) 철도노선 고속화 계획 수립 등 * 우크라는 철도 운영속도 향상(50→150km/h) 추진 중	철도공단 (* 운영 등 코레일 협업)	• '24년 외교부 ODA 선정,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 예정('25년)